

한국에서의 CAPD, 1990

대한신장학회

이 회 발

배경 및 방법 : 본 조사는 CAPD 등록사업 제 2 차년도 보고로 CAPD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(녹십자의공)된 전국의 47개 투석센터에 설문지를 우송하여,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CAPD를 시행한 모든 환자의 자료를 구하였다. 조사기간중의 사망 및 CAPD 중단원인은 전체환자를 대상으로, 복막염등 합병증의 빈도는 신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.

결과 : 29개 투석센터(61.7%)로부터 1990년 1월 1일 현재 환자 903명과 1990년중 발생한 신환 530명, 총 1433명의 자료가 보고되었다. 1990년말 현재 환자는 905명으로 비공식집계(녹십자의공) 1247명의 72.6%이었다. 신환 530명중 당뇨병 환자는 22.0%, 60세이상의 환자는 14.8%이었다. 총 1433명중 405명(28.3%)은 CAPD를 중단하고 다른 치료로 전환하였거나 추적불능, 81명(5.7%)은 사망, 42명(2.9%)은 신이식을 받았고, 905명(63.2%)이 1990년 12월 31일 현재 CAPD를 계속하고 있었다. 신환에서 최초의 복막염을 경험할 가능성은 3, 6, 12개월에 각각 21.4%, 35.4%, 56.0%이었고, 최

초로 도관주위 감염을 경험할 가능성은 각각 11.8%, 18.6%, 26.5%, 최초로 도관을 제거할 가능성은 각각 1.9%, 4.9%, 12.9%이었다. 복막염, 도관주위감염 및 도관제거의 빈도는 환자 년당 각각 0.9, 0.4, 0.1회이었다. CAPD 치료중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복막염(72.5%)이었고,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감염(27.2%)이었으며, 복막염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환자 81명의 22.2%이었다.

요 약 : 1. 47개 투석센터중 29개 센터로부터 보고된 14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. 이중 1990년중의 신환은 530명이었고, CAPD를 중단한 환자 405명중 223명은 1990년중 자료보고가 없었다. 2. 1990년 말 현재환자 905명은 비공식집계의 72.6%이었다. 3. 복막염의 빈도는 1989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고 신환중 복막염을 경험할 가능성도 1989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. 4. 그러나 아직도 복막염은 CAPD 환자의 사망과 치료중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남아있다.